

시청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지역경제살리기 총력

내일부터 월 1회서 주 1회 휴무 지역 상권 매출 증대·활성화 기대 시민 체감 향상 소상공인 지원

나주시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

대 실시한다. 나주시는 20일부터 구내식당 휴무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지역 경기 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주시청 구내식당은 직원 복리후생차

원에서 상호조화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어 일평균 2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주관 행사와 축제, 송년행사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각 기관사회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리고 경기 회복을 독려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일수록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서민 생활 안정 긴급 대책회의

"탄핵 정국 민생 최우선"

윤병태 나주시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체 국소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반 구성에 따른 지역경제 분야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요금의 경우 논리적으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했을 때 주민 입장에서 부담이 배가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도움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로 유예할 계획이다.

또 윤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 자체 예산 75억원에 편성했다"며 "연말·연시와 설 명절 특수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할인율 유지와 전통시장페이백,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이벤트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여파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 탄핵 정국 속 위축된 연말 소비 심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줄 것도 당부했다.

윤 시장은 "탄핵 결정까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경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모든 부서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빚가람동에 위치한 무등산염소탕이 105만원 상당의 염소탕 50그릇을 기부했다. 나주시 제공

무등산염소탕, 빚가람동에 염소탕 50그릇 기탁

나주시 빚가람동은 최근 관내 위치한 '무등산염소탕'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5만원 상당의 염소탕 50그릇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날씨가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등산 염소탕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다

양한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경주 무등산염소탕 대표는 "비록 작은 나눔에 불과하지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 한 그릇이 이웃들에게 건강과 온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제2기분 자동차세 50억9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나주시는 2024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3만1568건에 대한 50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해 12월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6)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나주시장배 호남권 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제25회 나주시장배 호남권 생활체육 탁구대회 성황

나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5회 나주시장배 호남권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탁구대회는 나주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호남권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같은 날 열린 '제1회 나주시장배 전국 시도 대항 어르신 볼링

대회'와 함께 올해 나주에서 개최된 마지막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대회 개최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체육회 김재익 회장, 전남도탁구협회 박용수 회장, 나주시탁구협회 최라현 회장 등이 참석해 나주를 찾은 전국 400여명의 탁구 동호인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25회 호남권 생활체육 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축하한다"며 "앞으

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단체전에서 혼성1부 핑퐁소토리B팀, 혼성2부 나주박민수탁구팀, 혼성4부 이재진탁구연합A팀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남자1부 김재현, 남자2부 장현태, 남자3부 정재훈, 남자4부 이거태, 여자1부 김은지, 여자2부 김애경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농식품부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장관상

조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 성과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서 장려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사료작물 품질

경연은 국내산 조사료 경영체 생산 의욕 고취와 우수 품질의 조사료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옥수수 등 국내산 사료작물 품질을 수분함량(40%)에 따른 품질평가 항목(외관, 화학적 검사 등)에 따라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추천으로 경영체 49곳에서 생산한 동계 사료작물 33점과 하계 사료작물 16점이 출품됐다.

장관상을 수상한 나주시 관내 경영체는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으로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품목이 선정됐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 최초 조사료 전문단지, 지난 20여년간 조사료 품질향상에 노력해 왔다.

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동·하계에 걸쳐 약 4000ha규모 조사료 재배에 대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품질 향상 생산비, 기계·장비·종자 지원 등에 예산 5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결혼이민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 안내 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결혼이민자 초

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비해 사증 발급 인정서 대행 신청 등 입국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하고자 진행됐다.

베트남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교육과 소통을 도왔다.

또 내년도 상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농철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여명이 입국해 최장 8개월간 지역 농가에 일손을 보탬 예정이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600여명이 지역 200여농가에 투입됐으며 이 중 150여명은 외국 지자체와 협약으로, 450여명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했다.

나주=김용의 기자